

코로나 때문에...생계형 자격증 '희비' 엇갈려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온라인 대체에 신청자 급증 사회복지사, 160시간 실습할 기관 찾기 골머리 피부미용사·수상구조사, 시험 재개·확대에 안도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으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자격증 종류에 따라 희비 엇갈리고 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이 필수 조건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실습 장소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지원자들이 있는 가 하면 현장실습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되면서 쾌재를 부르는 지원자들이 있다. 특히 온라인교육으로 인해 현장실습이 쉬워지면서, 이 부분 지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요양보호사 실습교육에 대한 예외 인정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온라인교육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지원자들은 기존 80시간의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장실습 대신 온라인 강의와 교육기관 내에서의 대체교육을 통해 실습시간을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주중에는 현장실습이 어려웠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현장실습 대체 효과인지 지난해 11월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는 5만 9984명으로 같은 해 2월 시험 응시자에 견줘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다르게 현장실습시간이 대체되지 않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의 경우 실습처를 구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160시간의 사회복지기관 현장실습 시간이 필요한데, 코로나19 확산세에 일부 복지기관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꺼려 실습처가 제한된 탓이다. 당장 광주 광산구 한 보육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사회복지 현장실습 대상자를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줄였다. 보육원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실습자들이 보육원에 4주 이상 출퇴근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을 감안해 실습자를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보육원 관계자는 "현장 실습자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기에 불가피하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관련 인터넷 카페에도 이 같은 고충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카페 게시판에는 '실습처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예요 TTTT', '실습처 구하기가 힘드네요 환불할

까 봐요', '다들 이렇게 안 구해 지는데 실습장소가 있어도 경쟁률이 치열하겠어요' 등의 불만과 불안 섞인 글들이 게시돼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확산세가 꺾임에 따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승통이 트인 분야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12회 중 5회만 치르고 잠정 중단됐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은 오는 3월 21일 재개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예정된 12회의 시험 중 5회만 실시했지만, 올해는 11월까지 광주·여수 등 3개 시험장에서 12회 시험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피부·메이크업 미용사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향으로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21-22일까지 접수기로 했던 미용사(피부·메이크업) 실기 시험 원서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무기한 연장됐다가 이달 17일 접수가 재개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교실 밖 다양한 학습장서 진로맞춤 교육 마을과 협력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남교육청 '2030 미래교육 발전방안' 확정

전남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남미래교육 원년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2030 전남미래교육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확정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외부 전문가 10명과 내부 인사 35명으로 긴급대응팀(TF)을 구성, 설문조사·분야별 세부계획 수립·공청회 등을 거쳐 발전 방안을 확정했으며 오는 3월 새 학년 시작 전 전선 교육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이 제시한 미래학교 청사진에 따르면 2030년 전남 학생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변모한 최적화된 학습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진로에 맞춰 개별화된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온라인·오프라인·학교 밖 학습장·지역 사회 캠퍼스 등 다양한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다.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자신의 흥미,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배울지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 기업 등과 연계한 학교 밖 학습장에서

는 도시 스마트농업·메이커 교육·도시교육 등의 수업을 들으면서 프로젝트를 하고 창업을 준비한다. 종합발전방안은 2030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와 협력,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수 있도록 '모두가 빛나는 지속가능한 전남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인간·자치·협력·민주·개방의 기본 철학을 중심으로 학교와 교육청,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상호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가 전체의 43%가 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인수에 최적화된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육성, 무학년 통합학교 등 교육과정의 유연화, 네트워크 학습체제 등 대안적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전남미래교육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미래역량중심 교육이 실현되는 교실, 공정과 포용의 책임교육, 배움과 삶의 터전이 되는 마을이 되도록 행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도시락 배달업체 위생상태 점검

18일 광주시 북구청 여성아동과 아동시설팀 직원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한 도시락 배달업체에서 도시락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최해혜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교육청 공무원직 1192명 인사

광주시교육청은 18일 교육공무원직 1192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3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원직 전보 관리 규정'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다. 소속 기관(학교) 4년 이상 근무한 만기자, 소속

기관 1년 이상 근무한 희망 내신자, 신규 발령자, 정수 조정자 등을 포함해 19개 직종 1192명(전보 1102명·신규 발령 30명·정년퇴직 60명)이 인사 대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본인 희망,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개인별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대학 FTA 활용 강좌 지원 광주대 2년 연속 선정

광주대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원하는 '2021년도 대학 FTA 활용강좌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광주대는 지난해 한 개 강좌에서 올해에는 두 개 강좌를 운영하며 참여 학생을 선발해 FTA 실무와 활용 집중교육, 현장실습 및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대는 지난해 강좌를 개설해 30여 명의 예비 FTA 전문 인재를 양성,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광주대 김갑용 책임교수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56개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학생들 또한 자격증 취득을 통해 이론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FTA원산지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에 선정된 광주대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이론과 현장 경험이 결합된 청년 무역전문가를 양성해 420여 명의 예비 무역 전문 인재를 배출했다. /채희중 기자 chae@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광주여대 4년 연속 선정

광주여자대학교가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교육부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역량(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등 6개 지표)을 평가해 우수 대학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대학은 정부초청장학생(GKS)과 같은 국제화 관련 대학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종 박람회(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참여·지원) 참여 기회 부여, 사증발급 심사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인증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이다. 국제교육원 김혜정 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물론 관리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공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소외받지 않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총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의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2020년 신간!

2021 신간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 왜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희동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제5쇄 판매중

정유재란 7주년을 맞아 펴낸 한중일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경의 종전 7주년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량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

최신간 양장